

화합과 단결로 공존공영 이루자

요즘 국내 인쇄업계의 경기는 심각할 정도로 침체되고 있다.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에다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 대부분의 인쇄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나는 인쇄인들마다 IMF 구제금융 체제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이다.

일감이 현저히 줄어든 탓에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낮에도 멈춰 서 있는 인쇄기들이 눈에 띄고, 노는 인쇄기 돌리고라도 보자는 식의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원가보전조차 어려운 정도의 덤핑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면서 공존공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설이 뒷받침 된다해서 경쟁업체에게는 무리한 출혈수주를 하거나 지연이나 인맥을 이용해 다른 업체의 거래선을 가로채는 행위 등은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업계 전체의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자사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알다시피 서울시경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 5월 22일 서울시인쇄조합과의 통합을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6월 13일 제주도에서 가진 서울시인쇄조합의 임시총회에서 경인쇄조합원에게 서울시인쇄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합원 자격 특례적용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 조합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인쇄조합은 지난 7월 3일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경인쇄조합에만 가입된 268개 업체가 서울시인쇄조합의 조합원사로 일괄가입 되었으며, 현재 조합의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경인쇄조합의 이사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확대시켜 조합원의 수익증대와 권익신장을 꾀하고, 단체수의계약을 낱날이 공개하여 투명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덤핑입찰을 자체 시키기 위해 입찰현황을 공개하는 등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경인쇄조합은 필연적으로 서울시인쇄조합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인쇄업계 전체로 전가되어 업

계의 공동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쇄인들이 두 조합으로 나뉘어 대립을 하느니보다는 통합을 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란 걸 확실하게 되었다.

사실 필자로서도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선배 인쇄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발전해 온 경인쇄조합을 역사의 장으로 사라지게 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의 이익보다는 조합을 통합해서 업계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통합을 추진했던 것이다.

필자는 경인쇄조합의 통합을 추진한 주체로서 앞으로 통합의 잘잘못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잘못된 통합을 추진한 역사적 죄인이 아니라 우리 업계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한 주역이 되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두 조합의 통합으로 인해 얻게 되는 혜택들이 조합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양 조합의 통합은 그동안 같은 인쇄물 시장을 놓고 양분되어 있던 조합을 단순히 통합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인쇄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

경인쇄업체들은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쇄물 제작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인쇄업체와 다를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거의 모든 인쇄물을 수주하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이나 규모만을 내세워 경인쇄업체를 차별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되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내의 인쇄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열과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 보다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인쇄업계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학규 · ㈜한림정보 대표이사